

표준의 사회경제적 효과와 새로운 규범의 가능성 및 표준학의 전망

정 병 기 | 영남대학교

사회가 더욱 다양화되고 교류가 늘어날수록 표준의 기능과 사회경제적 효과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그에 따라 표준의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고 긍정적 효과를 최대화할 것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표준 자체가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새로운 규범으로 등장하고 있다. 표준은 통일성을 지향하면서도 최소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질 높은 다양성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또한 새로운 규범의 가능성을 가진 표준은 인간 사회의 토대규범으로 발전하면서 사회과학적 독립 학문의 전망을 획득하고 있다. 독자적 연구 대상의 존재와 이론 및 방법론의 발전 그리고 연구 결과물의 축적이라는 독립 학문 성립의 조건들은 각론의 방대한 집적을 통해 충분히 증명되었다. 다만 사회학과 정치학적 시각을 보완하고 이론과 방법론을 학제적으로 체계화하는 총론적 작업이 과제로 남아 있다.

주제어: 표준, 다양성, 통일성, 새로운 규범, 표준학

I. 서 론

“갈수록 우리는 아는 것이 적어진다”고 독일의 유명 저술가 엔첸스베르거(Hans Magnus Enzensberger)는 현대 사회의 지식 범람에 대해 일갈했다(Bolz 2002, 42에서 재인용). 많이 알게 될수록 점점 모르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역설로 풀어보면, 안다는 판단이 불가능할 정도로 지식의 영역이 무한히 확대되었다는 얘기다. 특히 인터넷의 발달로 모든 지적 추구가 가능할 정도로 정보가 홍수를 이루고 이 정보들은 자유로운 교류를 통해 끝없이 재생산되고 있다.

국가간 관계에서도 교류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특히 1995년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대표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설립은 새로운 무역 규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무역기구와 무역기술장벽 협정(WTO/TBT Agreement)'에서 제외된 환경과 보건 및 안전 영역조차 국제적 무역규제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강대국의 부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생산은 더 이상 생산자(producer)의 전유 영역이 아니다. 소비자(consumer)가 단순히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 주체에서 벗어나 생산 과정에 영향을 미쳐 상품과 서비스의 변화에 기여하는 생비자(生費者, prosumer)로 활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또한 역설로 풀어보면, 소비자의 힘이 강해지는 만큼 기업과 같은 생산자들의 횡포가 커져왔다는 것이다. 이제 기업도 자신의 생산 영역에서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만큼 기업의 역할이 중요해졌을 뿐 아니라 그 힘이 매우 막대해졌기 때문이다.

이 모든 현상은 다양성의 확대로 해석된다. 강자의 획일성 주장에 대응하는 것이 약자의 다양성 요구일 수 있다. 그러나 무규범의 다양성 속에는 언제나 약육강식의 법칙이 도사리고 있다. 약자의 다양성 요구와 강자의 획일성 주장 사이에 다시 약육강식의 논리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 다양성을 더욱 확대하여 질 높은 실질적 다양성으로 발전시키고 무한경쟁에서 상호 발전의 가능성을 보장하는 새로운 규범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규범은 국가가 전일적으로 규정하거나 시장에서 무규제적으로 생겨나는 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사회주의의 폐단이나 시장자유주의의 실패를 우리는 역사에서 끊임없이 보아왔다. 요컨대 사회 행위자들에 의한 자발적인 규범 생산이 필요하다. 그것을 표준이라는 새로운 논의에서 찾을 수 있다.

사실 표준은 이미 우리 주변에 생활화된 현상이다. 그리고 그것은 비단 생산과 무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문과 사회 각 분야에 널리 퍼져 있다. 표준교과서나 한글맞춤법통일안 및 각종 도량형과 단체설립표준 등을 떠올릴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새로운 포괄적 규범으로 논의되지는 못했다.

표준에 대한 학술적 관심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제품, 생산, 기술, 공정 등 산업활동에서부터 각종 제품과 산업활동 분야 및 국가표준기구에 이르기까지 각론은 충분히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표준에 대한 총론적 논의는 거의 축적되지 못했고, 새로운 규범의 가능성에 대한 착상은 전무하다.

이 글의 목적은 현대 사회의 표준의 중요성에 착목하여 그 사회경제적 효과를 검토한 후 새로운 규범으로서의 가능성과 학문적 성립의 전망을 논하는 것이다. 때문에 총론적 논의가 매우 중요하다. 독자적 학문의 성립은 고유한 연구대상의 존재와 이론 및 연구방법론의 발전 그리고 연구결과물의 축적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중 고유한 연구대상의 존재와 이론 및 연구방법론의 발전은 방대한 양의 각론이 축적되었음을 볼 때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표준 연구의 이론과 방법론은 공학뿐 아니라 경제학과 행정학 등 사회과학 각 분야에 걸쳐고 있어 가히 학제적 방법론의 축적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글은 총론적 논의를 통해 표준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학문의 성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글의 구성은 크게 표준의 개념과 기능 및 사회경제적 효과를 검토하고 이를 근거로 표준의 새로운 규범으로서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논하며 표준학이라는 독자적 학문의 필요성과 성립 전망을 제시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이를 위해 먼저 드물지만 그동안 발표된 총론적 논의를 살펴보고 표준의 개념과 기능에 대해 그 확장 추세에 초점을 두어 고찰한다. 많지 않은 선행연구들에 대해 따로 지면을 할애해 살펴보는 것은 기존연구들의 논의지평을 고찰하는 것이 학문 성립의 가능성을 제안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며, 표준의 개념과 기능을 살펴보는 것은 표준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가늠하기 위한 전제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표준의 기능 확장을 현대 사회의 다양성 확대와 함께 살펴봄으로써 그 사회경제적 효과가 막대해짐을 밝히고 이러한 다양성의 시대에 막대한 사회경제적 효과를 가진 표준이 왜 새로운 규범으로 자리매김 되어야 하며 또 그 가능성은 어떤지를 규명할 것이다.

II. 표준에 관한 총론적 선행연구

드물지만 표준에 대한 총론적 논의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한글과 영어권을 살펴볼 때¹⁾ 김병기(2008), 김상규(1996), 김원중(1989), 박기식·강대경(1998), 윤

- 1) 새로운 학문으로서 표준학의 가능성을 논하기 위해서는 표준이 특별히 발전한 독일과 프랑스의 논의들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정된 지면 내에서 시론(試論)적 논의를 목표로 하는 이 글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독일과 프랑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나 이를 포함한 종합적인 논의는 추후의 작업으로 남겨둔다.

강술·강대경(2000), 이기상(1994) 등 여섯 편의 한글 논문들과, 오리얼과 베넴(Auriol and Benaim 2000), 패럴과 살로너(Farrell and Saloner 1985), 호이트(Hoyt 1919), 매틀리와 뷰테(Mattli and Büthe 2003), 매튜츠와 레지보(Matutes and Regibeau 1989), 오스트로브스키와 샤츠(Ostrovsky and Schwarz 2005), 비얼(Veall 1985) 등 일곱 편의 논문들 및 블라인드(Blind 2004), 게이벨(Gabel 1987, 1991), 그린들리(Grindley 1995), 호킨스와 맨셀 및 스키어(Hawkins, Mansell and Skea 1995), 크라이슬로브(Krislov 1997) 등 여섯 편의 단행본들을 들 수 있다.²⁾

김병기의 논문은 우리나라 국가표준제도의 한계를 논하면서 ‘(가칭)국가표준체계의 확립 및 국제표준화 대응역량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하는 등 전방위적인 법적·제도적 개선을 제안하고, 김상규는 표준의 역사를 기술하였으며, 김원중은 사내표준에 초점을 두어 표준의 제정절차와 원리를 당위적으로 서술하였다. 박기식·강대경의 논문과 윤강술·강대경의 논문은 특정한 경제학적 개념과 원리를 이용해 국가표준과 국제표준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고, 이기상은 표준의 비용 편익을 이론적으로 고찰하였다.

그중 김병기의 논문은 표준에 관한 가장 포괄적인 논의를 펼쳤으나 국가표준제도의 법적 제체 정비에 치중하였고, 김원중과 김상규의 논문은 분석적이라기보다 역사와 사실에 대한 기술에 가깝다. 김병기의 논문은 특히 다양성과 통일성의 효과를 상호 충돌하지 않게 잘 설명하고 있는 반면, 김원중과 김상규의 연구들은 통일성의 기능에 한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박기식·강대경 및 윤강술·강대경의 논문은 경제학 원리를 정교하게 적용하여 분석적인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러나 규모의 경제와 네트워크 외부 효과에 한정했으며, 두 논문은 사실상 대부분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기상의 연구는 실제 효과의 계량적 분석의 한계를 언급하면서 이론적 측정에 집중하여 표준의 비용 편익을 치밀하게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 논문도 경제적 효과에 치중하여 이 글이 목적으로 하는 총론적 분석의 일면을 만족시키는 데 머물고 있다.

2) 그밖에 표준 관련 기구에 근무한 실무전문가들이나 표준 관련 기구가 직접 발간한 문헌들도 있다. 그 대표적인 문헌들은 공업진흥청 1994; 기술표준원 2001; 김창수 2001; 신명재 2007; 최종완 1997;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1999; 한국표준협회 2007 등이다. 그러나 이 글들은 표준을 보급하려는 목적으로 제작된 만큼 학술적 논의와는 거리가 멀어 이 글에서는 제외한다.

보다 포괄적인 논의는 단행본들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린들리(Grindley 1995)의 역사와 사례 분석 및 크라이슬로브(Krislov 1997)의 국가와 표준의 관계 분석을 제외하면, 모두 총론적 입장에서 방대한 관심을 표출한 문헌들이다. 그러나 이 문헌들도 대부분 경제학적 논의에 한정되어 있어 학제적 논의로의 확대가 필요하다. 곧,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한 논의에서 이해 당사자들 간의 갈등 조절이 필요하다고 언급되어 있을 뿐, 이 갈등이 표준의 기능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고 또 어떻게 정치적 조절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논구하지 못했다. 정책적 관심을 보이기는 했으나 이 관심도 표준기구와 국가의 표준 제정과 확산 정책 혹은 전략에 머물렀다. 이것은 지금까지 표준에 대한 연구가 사회과학에서도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주로 경제학과 행정학에 국한된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III. 표준의 개념과 기능의 확장

1. 표준의 개념

영어의 '스탠더드' (standard)와 한자 표기의 '표준' (標準)은 유사한 어원을 가지고 있다(김상배 2007, 6-7). '스탠더드'의 어원인 'stand hard'는 '전쟁터에서 지휘관들이 명령을 내리는 신호 깃발을 세우는 집결지'를 의미하며, '標準'은 '높이 내건 안표(眼標)로서 측정을 위한 기준'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유래하여 'standard'는 '측정이나 참조를 위한 비교의 근거나 기준'이라는 의미를 띠게 되었으며, 우리말의 '표준'도 '사물의 정도를 정하는 목표나 기준 혹은 규격' (『국어대사전』 2001)이라는 뜻으로 확립되었다.

어원으로 볼 때 '스탠더드'와 '표준'에는 권력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곧, "표준은 아무나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권력을 가진 소수나 공인된 다수에 의해서 설정되는 것이 상례"이며, "표준을 수용하는 사람의 수가 많을수록 그 가치가 커지는 성격을 지니"지만, "표준을 수용하는 사람들도 표준의 권력이 작동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김상배 2007, 6)는 것이다. 표준에서 그 권력은 자발적 수용의 대상이 되는 긍정적 의미의 권위를 말한다. 소비자의 자발적 선택에 따라 이 권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권위없는 권력으로서 오래 지탱할 수

없게 된다.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표준화기구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마케팅 전략의 비중이 커지면서 시장의 선택에 따른 '사실상 표준(de facto standard)' 만이 아니라 공공기관이 제정하는 '공적 표준(de jure standard)'의 결정 과정에서도 소비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국제표준기구인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규정(ISO/IEC Guide 2)은 이러한 표준의 성격을 잘 반영하고 있다. 즉, 표준은 "공인된 기관이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위하여 합의에 의해 제정하고 승인한 것으로서,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적의 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나 그 결과를 위한 규칙 혹은 가이드라인이나 특성을 제시하는 도큐먼트"라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와 무역기술장벽 협정(WTO/TBT Agreement)'도 이를 준용하여 "규칙이나 지침, 또는 상품의 특성이나 관련 공정 및 생산방법을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위하여 규정하는 것으로서, 공인된 기관에 의해 승인되고 그 준수가 강제적이 아닌 도큐먼트"(Annex 1)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유럽의 지역표준기구인 유럽표준화위원회(CEN)가 규정하고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수용하고 있는 유럽표준화위원회 규정(EN 45020)도 역시 표준을 "합의에 의해 제정되고, 공인된 기구에 의해 수용되며, 규정이나 가이드라인, 혹은 활동이나 그 결과물들을 위한 안표라는, 공통의 반복적인 용도를 위해 제공되는 도큐먼트"라고 규정했다. 이 규정들의 특징은 표준을 '비강제적 도큐먼트(문서)'라고 정의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정의들은 자발성과 합의성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정의들은 표준의 형식을 '도큐먼트'에 한정할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적 표준에 초점을 두어 언어·부호·법규, 능력·태도·행동규범·책임 및 전통·관습·가치·권리·의무를 망라하는 인문사회적 성격을 배제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표준이 인문사회영역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규정은 중요한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표준 정의는 이러한 한계로부터 다소 벗어나 있다. 기술표준원은 한국산업규격(KS A 3001)의 규정에 따라 표준을 "관계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익이나 편리가 공정하게 얻어지도록 통일·단순화를 꾀할 목적으로 물체·성능·능력·동작·절차·방법·수속·책임·의무·사고방법 등에 대하여 정한 결정"이라고 규정했다.³⁾ 한국표준협회도 이를 받아 "표준이란 관계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익 또는 편리가 공정하게 얻어지도록 통일·단순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물체·성능·능력·배치·상태·동작·절차·방법·수속·책임·의무·권한·사고방법·개념 등에 대하여 규정한 결정”이라고 명기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유연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한국표준협회 2007, 19).⁴⁾ 곧, 사고방법이나 개념 같은 용어들을 부가하여 인문사회적 혹은 사회문화적 표준까지 포괄했으며, ‘문서’ 대신 ‘결정’이라는 단어를 선택함으로써 시야를 확대했다. 여기에 관습과 가치에 대한 고찰을 덧붙인다면 매우 포괄적인 시각이 마련될 것이다.

표준을 모든 인간 삶의 영역을 망라하는 새로운 규범으로 보는 취지에서는 과학과 기술의 영역에 한정하거나 성문화된 문서인 도큐먼트에 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즉, 예절과 언어(예를 들어 맞춤법통일안) 혹은 학술적 기준이나 덕목 혹은 사회적 책임 같은 관습과 가치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형식은 반드시 성문적일 필요가 없으며, 실제로도 불문 형식의 관습과 가치가 우리 주변에는 적지 않다. 또한 인문사회적 혹은 사회문화적으로 확장할 때 표준은 “어떠한 사상이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울 때 이를 예측할 수 있는 상태로 질서를 잡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한국표준협회 2007, 32)까지도 포함한다. 따라서 표준은 “무게·질량·범위·품질 등의 측정 원칙이나, 공정·분석방법 등의 기술, 혹은 사회문화적 관습이나 가치 등이 합의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규정에서는 ‘공인된 기관’이라는 의미에 얽매일 필요도 없다. ‘사실상 표준’에서 볼 때 표준은 반드시 공공기관에 의해 인정되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율적인 당사자들 간의 계약이나 묵시적인 사회적 인정도 포함해야 할 것이다.

2. 표준의 기능

전통적으로 표준은 호환성 확보, 기본 품질 보장, 정보 제공이라는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변화와 다양성의 시대를 거치면서 제품과 공정뿐 아니라 제도와 경영 및 문화와 윤리의 영역에도 확대되어 이제는 법률의 대체 개념으

3) 기술표준원, “표준화란?.” http://www.standard.go.kr/code02/user/0A/02/StdOutline_Intro.asp?OlapCode=STAU010201(검색일: 2009. 9. 21).

4) 표준의 분류와 관련해서는 기술표준원도 기관 홈페이지에서 과학기술계 표준과 인문사회적 표준을 분리하여 언급하고 있다. http://www.kats.go.kr/hm/business_01/standard_01_04_01.asp(검색일: 2009. 9. 21) 참조.

로까지 등장하고 있다(Hallström 2004, 3-15). 그리고 변화와 다양성의 시대를 넘어 표준은 무역 규범, 사회통합 수단, 사회적 책임(SR) 이행 수단, 기업경영 전략, 기술혁신 도구, 지속가능발전의 도구로도 기능한다. 뿐만 아니라 교육, 노동, 환경, 문화, 행정, 복지 및 윤리에 이르기까지 표준의 기능은 더욱 확장되고 있으며, 실제 각종 표준화기구들이 이 분야들에서 표준을 제정하고 있다.

호환성 확보는 제품의 기능이나 성능을 유지하면서 장치나 기기의 부품 등 구성 요소를 다른 기기의 요소와 서로 바꾸어 쓸 수 있는 조화가능성(compatibility)과, 치수나 형상을 통일하여 성능과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교체가능성(interchangeability)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생산공정에서 표준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생산원가를 절감하고 공급을 원활하게 하여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를 가능하게 한다. 곧 표준은 생산공정의 복잡성을 단순화하고 표준을 통해 통일함으로써 호환성을 확보하게 하여 대량생산과 규모의 경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⁵⁾

기본 품질 보장 기능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기본 품질 요건을 마련하고 이 최소한의 요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기능은 소비자의 기대에 부응하고 공정한 거래를 보장하기 위해 법·제도와 연계하여 강제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표준은 또한 환경, 안전, 보건 분야에서 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표준의 내용은 사실상 정보 자체라고도 할 수 있다. 규격을 단순화하고 통일함으로써 호환성을 확보한다거나 최소한의 품질 기준을 정해 이를 지키도록 할 때, 그 규격과 품질의 내용은 일정한 정보에 해당하며, 이를 통해 수행하는 기능이 정보 제공이다. 호환성 확보와 기본 품질 보장의 기능은 표준 정보 자체만으로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제정된 표준이 법이나 제도 혹은 생산과정을 통해 제품이나 서비스에 적용된 후에야 비로소 소비자를 비롯한 표준 사용자들에게 발휘된다. 반면, 정보 제공은 표준 자체가 소비자와 표준 사용자들에게 직접 다가가고 이들에 의해 이용되는 정보로서의 기능이다.

5) 단순화와 통일화를 통한 복잡성의 저감을 또 다른 표준의 기능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예를 들어, Blind 2004, 13-23). 그러나 단순화와 통일이 복잡성의 저감을 가져오고 이 복잡성의 저감은 결국 호환성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복잡성의 저감을 호환성에 포함시킨다.

현대 사회에서 표준은 더 이상 전통적 기능만을 수행하지 않는다. 그 새로운 기능으로 꼽을 수 있는 첫 번째가 무역규범으로서의 기능이다. 국제표준기구들이 환경, 보건, 안전 등에 관한 국제표준을 제정하는 것은 이 부문들이 국제 무역경쟁의 수단이 됨으로써 인간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특히 현실주의 입장에서 볼 때, 국제질서는 약육강식의 정글법칙이 작용하는 무대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국제협약이나 기구들조차 강대국의 이익을 위해 희생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회원국 모두가 함께 참여해서 공동으로 제정할 수 있는 규칙이 보장된다면, 국가들 간 합의에 의한 국제표준을 통해 이러한 무역경쟁을 제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표준은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무역 규범으로 작동한다.

둘째, 표준은 사회통합수단으로 기능한다. 세계는 정치에서 시작하여 산업과 정보에 이르기까지 통합의 역사를 거쳐 왔고, 앞으로도 통합의 역사를 창조해 나갈 것이다. 어느 사회이든 통합은 규범을 통해 이루어지며, 그 규범이 강제적이 아니라 동의와 합의를 통해 이루어질 때 통합은 보다 견고하고 오래 지속될 수 있다. 또한 동의와 합의에 기반하여 생성된 규범은 다시 사회적 동의를 거쳐 그 유용성과 실익을 인정받을 때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강제성을 띠는 약속 내지 법률로 제정되기도 한다. 그리고 기존의 규범이 약화되거나 사라지고 새로운 규범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그 규범이 통합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표준은 동의와 합의를 기반으로 하고 자발적 수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진정한 통합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현재 국내·국제적으로 새로운 통합 규범으로 등장하고 있다.

셋째, 표준은 사회적 책임(SR: Social Responsibility)의 이행 수단이다. 세계는 경제사회의 통합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영역들의 통합으로도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세계는 여전히 군사적 알력이 아니라면 경제적 다툼의 장이다. 따라서 경제적 갈등과 다툼이 심해질수록 국제사회에서도 경제 주체들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왔다. 그에 따라 사회적 책임은 비단 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미 2002년부터 국제연합(UN)은 유엔환경계획(UNEP)의 국제협약(Global Compact)을 통해 기존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서 '기업'을 삭제하고 '사회적 책임(SR)'이라는 용어로 변경했고 이어 2006년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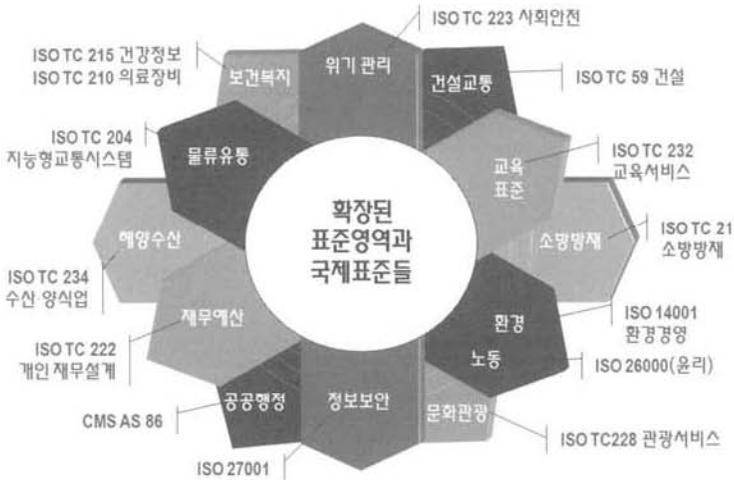
협정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인권, 노동, 반부패, 환경 등의 부문으로 확장해 관련 국제표준을 제정키로 합의하였다(정병기 2008, 42).

넷째, 표준은 기업경영 전략으로 기능한다. 계획(Plan)하고 실시(Do)하고 확인(Check)하고 실행(Action)하는 것은 표준 시스템의 전형적인 업무 추진 방법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방법의 도입은 벤처기업을 대기업으로 성장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즉, 표준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많은 기업경영의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고 각종 보고서를 참고하기 때문에 표준은 투자의 위험요소를 알려 주고 경영 성과의 지름길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다섯째, 표준은 기술혁신 도구이다. 표준화된 기술은 이미 그 내용과 정보를 공개한 것일 뿐만 아니라 당대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기술이며 대부분 가장 앞선 기술에 해당한다. 따라서 표준 기술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자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지표이다. 때문에 표준을 알면 학습 효과뿐 아니라 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간접경험 효과도 거둘 수 있다. 다시 말해 표준은 기술경제적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선의 기술(state-of-the-art)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성공 사례로부터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상의 관행(best practice)을 발견하며 개발 목적에 가장 근접한(fitness for purpose) 기술을 개발하도록 유도한다.

여섯째, 표준은 지속가능발전의 수단으로 기능한다. 무절제한 경제발전의 문제는 사회통합과도 관련된다. 사회통합의 문제는 실업과 빈곤 문제의 해결 같은 경제사회의 통합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수자의 삶을 보장하는 것도 포함한다. 또한 환경과 관련된 삶의 질 보장도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한 주요 요건 가운데 하나다. 표준의 지속가능발전 수단 기능은 경제발전이 저해할 수 있는 환경보전과 사회통합의 문제를 고려하여 이 세 가지 문제 해결이 함께 이루어지는 발전을 추구한다.

실제 2006년 국제연합과 국제표준화기구의 협정은 표준의 기능을 더욱 확장했다. 사회통합과 환경보호를 표준의 대상으로 포함시켜 표준을 지속가능발전의 도구로 확립한 이 협정은 교육, 문화, 행정, 복지 및 윤리 같은 더 많은 관련 영역들로 확대될 수 있는 여지를 갖추게 한 것이다. 이를 통해 확장된 표준이 기능하는 영역은 위기관리, 건설, 교통, 교육, 소방, 방재, 환경, 노동, 문화관광, 정보보안, 공공행정, 재무, 예산, 해양수산, 물류유통, 보건복지 및 윤리에까지 이르고 있다(정병기 2008, 46-48).⁶⁾



〈그림 1〉 표준 기능의 확장

IV. 표준의 사회경제적 효과

1. 표준의 긍정적 효과

표준이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실로 막대하다. 세계 무역의 약 80%가 표준의 영향하에 있으며, 유럽연합은 사회통합의 도구로서 표준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김창수 2001, 2). 독일표준협회(DIN: Deutsches Institut für Normung)는 독일에서 표준이 창출하는 경제적 효과를 연간 160억 유로(Euro)로 추산하는데, 이는 독일 GNP의 1%에 해당한다고 한다(DIN 2004, 6).⁷⁾ 영국표준기구(BSI: British Standards Institution)도 표준화에 의한 노동생산성 상승 효과가 13%에 이른다고 평가하며, 오스트레일리아표준기구(SA: Standards Australia)도 국가표준이 1% 증가하면 생산성도 0.17% 상승한다고 보았다(정병기 2008, 55). 그밖에 사회적 책임과 안전보장 및 기본품질 보장 기능에 따른 사회적 영향도 비록 계량적 측정은 어렵

6) 표준 기능의 확장에 대한 그래픽은 기술표준원 연구관 선향 박사의 도움을 받았다.

7) 표준화의 경제적 효과 전반에 대해서는 DIN, 2000a와 2000b를 참조.

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심대한 것으로 나타나며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표준이 미치는 막대한 사회경제적 영향은 표준의 본질적 기능이 산출하는 표준화 효과를 통해 가능하다. 표준의 효과는 크게 수확체증 효과, 네트워크 외부성 효과, 확장성 효과 및 공공성 효과로 나눌 수 있다.

표준의 첫 번째 긍정적 효과는 수확체증의 효과이다. 수확체증 효과는 한 마디로 일단 시장에서 성공한 제품이나 기업, 다시 말해 표준화를 획득한 제품이나 기업은 계속해서 성공하는 반면, 실패한 기업은 계속해서 실패하는 이른바 '긍정적 환류(positive feedback)' 효과를 의미한다. 어떤 제품이 시장에서 한 발 앞서 나아가기 시작하면, 그 앞선 것 때문에 시장에서 계속 앞서 나아가는 선발자(先發者) 이익이 극명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가격이나 기술에서 우위를 가리기 힘든 제품들이 경쟁하고 있을 때, 긍정적 환류 현상은 초기의 작은 우위성에 의해 어떤 하나의 제품이 표준화되면 이 제품이 시장 전체를 장악하여 고정되는 잠금 현상(lock-in)으로 연결된다. 이러한 원리가 작용하는 표준화 경쟁에서 기업은 초기 수요자 선점을 통해 선순환 효과를 이용하기 위해 다양한 시장 확보 전략을 모색한다(현대원·김광재 2007, 77).

수확체증이란 노동시간이 추가될수록 산출량이 증가한다는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 와도 같은 의미이다. 수확체증은 특히 전기, 가스, 철도, 전화, 쓰레기 처리 같은 자원독점형 산업에 적용되는 효과지만, 최근에는 하이테크 산업에도 이 효과가 적용된다고 알려져 있다(Arthur 1996). 무엇보다 지식주도형 경제에서는 미래의 기술을 누가 먼저 선점하여 표준화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 표준을 획득한 기업은 그 표준이 가져오는 막대한 경제적 이득뿐만 아니라 기술 혁신 면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어 긍정적 환류 효과가 더욱 커진다. 또한 경제적 이익과 기술 혁신은 관련 제품과 서비스로 확산되어 또 다시 환류됨으로써 이른바 네트워크 외부성 효과로 인해 수확체증 효과는 더욱 증폭된다.

둘째, 네트워크 외부성(Network Externality) 효과는 "각 경제 주체가 특정 재화를 사용하여 획득하는 효용이 특정 재화와 호환적인 재화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많을수록 그 재화로부터 얻을 수 있는 효용이 커짐"을 말한다(현대원 외 2007, 72).⁸⁾

8) 네트워크 외부성 효과는 네트워크 효과라고도 한다. 그러나 간접적인 네트워크 외부성 효과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서는 네트워크 외부성 효과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

표준화는 기본적으로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며, 이 네트워크는 당해 제품의 수요자들 사이에서만 아니라 유사 제품들의 공급자 사이에도 존재한다. 네트워크 내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혼란을 방지하고 생산과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 중의 하나가 표준화인 것이다. 또한 당해 제품뿐만 아니라 호환성을 가진 다른 제품들의 수요가 많아질수록 당해 제품의 수요는 다시 커지게 된다.

네트워크 외부성은 크게 직접적인 형태와 간접적인 형태, 두 가지로 나타난다. 직접적인 네트워크 외부성은 동일 제품 사용자의 수가 증가함으로써 직접 야기되는 효용의 증가를 의미하며, 간접적인 네트워크 외부성은 호환되는 상품, 즉 보완재의 종류와 수가 증가함에 따라 그 제품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직접적인 네트워크 외부성은 인터넷 포털, 커뮤니티 등 온라인 서비스 분야처럼 네트워크 안에서 상호 소통하는 것 자체의 효용이 클 경우에 잘 나타나며, 간접적인 네트워크 외부성은 운영체제(M/S) 분야 같이 파급 효과가 큰 영역에서 잘 나타난다.

셋째, 확장성의 효과는 국제표준화하는 경향을 말한다. 표준의 영역은 무한히 확대되어 왔으며, 그에 따라 표준화도 그 외연을 확장해 이제 표준화를 국내 차원에서만 실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국제표준을 국가표준으로 수용하는가 하면, 국가표준을 국제표준으로 수립하려는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표준은 무한히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표준은 네트워크 외부성 효과를 지님으로써 그 자체로 이미 확장성을 띠고 있다. 그러나 이제 표준화는 일국 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계화 현상과 더불어 국제규범화의 성격을 내면화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말하자면, 표준화의 국제성 혹은 지구적 확장성은 새로운 기술 시대에 나타난 새로운 성격이자 효과라고 할 수 있다.

넷째, 공공의 이익을 촉진한다는 의미에서 표준은 공공성의 효과를 갖는다. 현대 사회에서 표준화는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작업을 통해 공적 표준을 생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또한 표준화의 중요성은 바로 공적 표준의 제정과 활성화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만큼 표준과 표준화의 공공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성과 강제성을 기준으로 표준과 기술 규정을 구분하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표준은 이미 인간의 삶과 문화를 아우르는 모든 영역에 침투해 있어서 공공성을 언급하지 않고는 표준을 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렇지만 표준은 법규화하지 않는 한, 여

전히 자발성에 기초하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바로 이 점이 표준에 대한 합의와 동의의 수준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 근본적으로 표준은 그 제정뿐만 아니라 활성화에 있어서도 자발성과 합의에 기초하고 있다. 다만 강제성을 띠어서라도 공공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표준은 강제적 법령으로 작용할 수 있을 뿐이다.

표준은 일단 제정되면 다수의 수요자를 창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인간 삶의 질과 연결된 영역에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고 그에 적합한 제품과 공정 및 서비스를 권고하는 것은 국제표준기구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일 뿐 아니라, 사람들의 요구수준이 높아져 가고 있는 현대에는 많은 동조자들을 동원하기도 한다. 그밖에 삶의 질과 직접 연결되지 않은 경제 부문에서도 사회적 책임(SR)이 표준의 주요 대상으로 부상하면서, 표준의 공공성 효과는 더욱 확대되었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인간 삶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연결되어 있는 부문일수록 사람들의 관심은 높아질 것이며, 따라서 표준의 영역은 이러한 부문으로 우선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2. 표준의 부정적 효과

표준의 사회경제적 효과들이 반드시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 효과들과 직·간접적으로 얽혀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효과들도 있다. 그 부정적 효과로는 고착화 현상과 양분화 현상이 대표적이며, 그밖에 네트워크 효과와 직접 관련된 부정적 파급효과도 있다.

그렇지만 이 부정적 효과들은 긍정적 효과들과 맞물려 발생하는 만큼 긍정적 효과들을 충분히 살리면 미연에 방지될 수 있다. 또한 부정적 효과들은 대부분 무한 경쟁이 난무하는 '사실상 표준'에서 자주 나타나므로, '공적 표준'의 구속력 확대를 통해서도 일정한 해결이 가능하다.

부정적 효과의 첫 번째는 고착화 현상이다. 이 현상은 표준이 승자독식에 따른 독점화 폐단을 초래하여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가로막고 기술 혁신을 저해하며 네트워크 외부성 효과를 통해 소비자들의 과도한 관성을 유발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저항으로 표출되는 소비자들의 이러한 관성은 이른바 전환비용(switching cost) 때문에 발생한다(Porter 1980). 곧, 시장이 하나의 기술에 이미

고착되었다면, 소비자들은 다른 기술로 전환하는 데 따르는 학습 시간과 새로운 제품 구입 같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 또한 수확체증 현상이 적용되는 경제에서는 그 과정에서 제품 선택에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보조금 같은 전환비용도 이미 증가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선택은 더욱 어렵게 된다.

이러한 고착화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독점체의 전횡으로 인해 시장이 왜곡되고 새로운 기술 개발에 대한 유인도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표준화 기구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존의 표준에 대해 다시 점검하고 그 개폐를 논의하여 고착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사실 독과점에 의한 폐단은 표준화기구만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국가의 공권력과 법규를 통해 부당한 독과점의 행위를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행위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적어도 이러한 점에서는 국제사회에서 표준화 기구가 해야 할 일이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표준의 새로운 기능 중의 하나인 공공성의 효과를 충분히 살려 사회적 책임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 방법이 될 것이다.

둘째, 수확체증 효과 및 네트워크 외부성 효과로 인해 양극화 현상도 나타난다.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국제적인 표준이 형성되면 기술적으로 열위에 있는 국가와 기업들은 이에 종속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구조적인 종속관계가 지속된다면 표준 선점자와 남은 자들의 양극화가 심화된다. 특히 첨단기술의 경우, 표준을 선점한 선진국의 독점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은 훨씬 높다. 더욱이 적절한 기술 개방을 의무로 하는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식재산권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경우에는 표준화에 실패한 국가와 기업들이 과도한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 결과가 생기기도 한다. 모든 관련 내용들의 독점을 허용하는 특허에서 이 문제는 가장 첨예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시장에 맡겨진 '사실상 표준'에서도 문제는 역시 마찬가지이며, 표준을 지정만 할 뿐 기술 공개와 같이 표준과 관련된 책임이 수행되지 않을 때에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곧, 양극화는 독점화의 다른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다. 결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표준화 영역으로 확대하여 공공성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한 방안이 된다.

또 다른 측면의 양극화로 고용 감소에 따른 공익의 훼손과 사회적 불평등이 생길 수 있다. 단순화와 통일화로 효율성을 높이는 표준화로 인해, 특히 자동화를 통한 생산 공정의 표준화로 인해 제품 품질과 기업 생산성은 향상될 수 있지만, 그 부정적 효과로 고용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이 문제도 역시 사회의 양극화로 귀

결될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표준화는 언제나 새로운 기능의 하나인 노동을 비롯한 삶의 질과 관련된 영역에서 공공성 효과를 고려하는 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셋째, 네트워크 외부성으로 인해 악단차 효과(bandwagon effect)와 속물 효과(snob effect) 및 공장 옆 과수원 효과가 발생한다(이준구 2008, 161-163; 이덕희 2008). 악단을 태운 악단차는 공연 선전을 하며 마을 어귀를 돌아다니며, 이 악단차 뒤에는 악단 구성원뿐만 아니라 이 선전 공연을 보려는 구경꾼들이 따라다닌다. 악단이 흥행할 수 있다면 이 선전 공연에서부터 구경꾼들이 많이 모일 것이다. 이처럼 한 무리의 사람들이 유행을 이끌면 이후 다른 사람들이 그 유행을 따르는 현상이 악단차 효과다. 표준화로 인해 유행이 성립된다면 그 제품이 잘 팔리게 되는 효과가 바로 악단차 효과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속물 효과는 명품 소비의 예가 대표적이다. 이른바 속물 근성이 강한 사람일수록 남들이 감히 사지 못하는 값비싼 명품에 집착한다. 남들이 구매하지 못하는 물건을 지님으로써 자신의 능력과 힘을 과시하려는 심리가 깔렸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어떤 상품을 소비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상품의 소비가 오히려 줄어드는 결과가 생겨난다. 이러한 경우도 네트워크 외부성 효과의 하나이다.

매연을 뿜어대는 공장 옆의 과수원도 이 네트워크 외부성 효과로 인해 손해를 보는 경우이다(이덕희 2008). 우리나라에서 문제된 바 있는 소위 '쓰레기 시멘트'의 문제가 대표적인 예다. 쓰레기 재활용을 위해 화학쓰레기들까지 녹여 시멘트를 만듦으로써 그 유독 가스와 먼지로 인해 주변 농장의 피해가 심각하게 나타난 사실이 보도된 바 있다.

그러나 속물 효과는 표준화와 관련해 그다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지 않는다. 이른바 속물 근성은 표준화와는 무관한 다른 사회적·인성적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속물 효과는 표준화로 인해 생겨나는 폐해도 아닐뿐더러 표준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악단차 효과에서 나타나는 '유행'의 의미도 단순히 '남을 따라 하는 유행'의 의미라면, 이 근성 또한 하나의 속물 근성이라고 할 수 있다. 남들이 다 하는 것을 하지 못함으로써 자신의 능력이 뒤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열등감에서 무리와 낭비를 초래하면서까지 유행을 따라가는 것은 소극적 의미의 속물 근성인 것이다. 표준화에서 이야기하는 다수의 수요 획득은 표준의 기본 품질 보장 기능을 전제로

하여 그 효용과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의미를 갖는다. 물론 유행을 '사실상 표준'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사실상 표준'도 최소한의 기능과 품질을 보장받은 측면에서 확보될 때 진정한 의미의 표준이 된다. 그리고 표준화는 '공적 표준'의 제정과 활성화에 한정하는 것이므로 속물 근성에 따른 '유행'은 표준화의 직접 관심사가 아니다.

반면 공장 옆 과수원의 문제는 표준화가 의도하지 않은 문제이지만 표준화와 관련이 될 수 있는 문제이다. 위의 예에서 '쓰레기 시멘트'를 환경 보호와 관련된 우수 제품으로서 표준화했다면 그것은 표준화의 심각한 오류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오류도 역시 표준의 본래 기능에서 파생된 것이라기보다 표준화 활동의 오류로 인해 파생된 결과일 뿐이다. 표준을 제정할 당시에 고려할 환경 문제는 비단 쓰레기의 재활용만이 아니라 인근 자연환경의 보호도 포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준화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심사상의 오류인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절차상의 시정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V. 새로운 규범으로서 표준의 가능성과 표준학의 전망

1. 새로운 규범으로서 표준의 가능성

현대 사회는 다양성의 사회이다. 그에 맞추어 표준의 영역과 기능도 무한히 확장되어 왔다. 이제 새로운 시대 규범으로서 표준은 국가에 의한 강제 규정에 머물지도 않으며 시장에 방임되지도 않는다. 그러나 표준의 성격은 본질적으로 공적 접근성을 가지며 갈수록 그 공공성이 확대되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표준은 공적 성격을 띠지만 자발적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구속성을 갖는다 하더라도 법이나 명령 및 조례와 같이 강제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합의를 통해 제정하여 임의로 수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표준의 기능과 효과에서 본 바와 같이 표준을 선점한 자와 수용한 자 및 수용하지 않은 자 사이에서 갖가지 기능과 효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그 공적 성격을 제도적으로 확보할 것이 요구된다.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법으로 규정할 수 없는 영역이 확대되며 그에 따라 자발성



자료: DIN Homepage, <http://www.din.de/cmd?level=tpl-rubrik&menuid=47421&cmsareaid=47421&menurubricid=47429&cmsrubid=47429&languageid=de> (검색일: 2009.09.21).

〈그림 2〉 표준의 공적 성격과 위상

의 영역이 넓어진다. 이 영역은 근본적으로 다양성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시대 규범으로서의 표준의 성격은 이와 같이 공적 접근성과 함께 다양성의 보장과 관련된다.

국제적으로도 국가들 간 협정만으로는 더 이상 국제사회를 온전히 규율할 수 없게 되었다. 성, 문화, 인종, 종교, 언어 등의 모든 현상들이 세계화를 통해 통일을 지향하면서도 결코 단일성으로 귀결될 수 없는 다양성의 복합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최소한의 질적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발전지향적 모범이 되는 규범이다. 그리고 이 규범은 국가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논의한 결과로서 그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해야 한다.

인류의 역사는 실로 원자화의 시대에서 통일로 발전하고 다시 통일에서 다양성으로 발전해 왔다. 진시황의 진 나라와 로마 제국 이전에 동·서양은 제각기 수많은 나라들이 각축하던 원자화된 사회였다. 이 시대가 진(秦) 제국과 로마 제국으로 통일되었으며, 이 제국들은 다시 해체되어 봉건사회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 봉건 사회는 과거의 원자화된 소규모 국가들보다는 큰 규모의 국가들이 각축하는 사회였다. 원자화와 통일의 변증법적 발전이 이루어져온 것이다.

이후 봉건 사회의 제후국들은 다시 통일의 수순을 밟아 민족국가를 이루고 급기야 양차 대전을 전후해서는 파시즘 국가들과 자유주의 국가들이라는 두 진영으로 분리·통합되었고, 이 형태는 양차 대전 이후 현실사회주의와 자본주의라는 두 진영으로 재분할되었다. 이른바 동맹의 형태로 통일이 이루어져온 것이다.

그리고 1980년대 말 이후에는 지식과 감성으로까지 기술 개념이 확장되는 다양성의 사회가 도래했다. 그와 동시에 세계화라는 흐름 속에서 새로운 통일성의 기운이 팽창하기도 한다. 그러나 과거의 통일성이 다양성을 대체할 수는 없다. 역사는 언제나 발전적으로 종합하면서 전개되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대의 다양성은 획일성을 요구하는 세계화가 아니라 다양하게 포진하고 있는 인간과 집단들의 이해관계가 골고루 반영되는 새로운 통일성이 될 것이다. 그 새로운 통일적 규범이 곧 표준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규범으로서의 표준은 다양성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질 높은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다양성을 포괄하는 표준은 다시 표준화 영역의 다양성으로 연결된다. 표준은 그동안 전통적 기술 분야에 국한되어 제정되어왔다. 그러나 기술의 의미가 확장된 것처럼 표준의 의미도 확대되고 있다. 사회적 책임을 포괄하는 설명에서 보았듯이 이제 표준은 위기관리, 교육, 재무관리, 정보보안, 공공행정 등 다양한 분야로 그 대상 분야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그에 따라 표준의 기능도 능률과 효율뿐 아니라 삶의 질 개선 같은 다양한 사회적 이슈 영역으로 확장되어가고 있다. 표준은 이제 특정 사회나 국가에만 한정되지도 않으며 전통적인 기술 영역에 한정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표준은 현대와 미래 사회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새로운 규범으로 자리잡아간다고 할 수 있다.

2. 표준학의 전망

서론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독자적 학문의 성립은 고유한 연구 대상의 존재, 이론과 방법론의 발전, 연구 결과물의 축적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리고 그 분과학문이 속하는 계열학문은 연구 대상의 성격에 따라 규정된다. 표준은 자연과학과 공학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이 분야와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지만, 인간사회의 중요한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규범으로까지 발전하고 있어 굳이 분류하자면 사회과학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과학에서 어떤 대상이 인간과 인간사회의 본질을 구성하거나 심대한 영향을 미칠 때 학문적 대상으로 독립될 수 있다. 근대 사회에서 법치국가가 생겨나고 법이 더 이상 권력현상의 수단이 아니라 근대국가의 존재근거로 확립됨으로써 법학이 발전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표준도 그 영역과 기능 및 사회경제적 효과가 확대됨으로써 새로운 시대 규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졌다. 따라서 표준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요구와 조건은 충분히 갖추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론과 방법론도 다양하게 발전되어 왔다. 일일이 거론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제출된 표준 연구들에서 경제학과 공학 및 행정학 이론과 방법론들이 활용되어왔다. 그것은 표준에 대한 연구가 정보나 제품 및 기술과 공정들 중 개별 품목과 사안에 대해서만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심지어 문학에서도 맞춤법통일안과 같은 개별 표준에 대한 연구가 별도로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이론과 방법론의 발전도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 이론과 방법론의 체계화이다. 개별 분과학문에서 독자적으로 전개되어온 이론과 방법론들을 학제적으로 엮어 체계화하는 작업이 요청된다는 것이다.

연구 결과물도 위에서 말한 것처럼 각론에서는 헤아릴 수 없이 방대하게 축적되었다. 그러나 이론과 방법론이 분과학문별로 발전해왔듯이 연구 결과물도 분과학문들 내에서 개별적으로 축적되었다. 따라서 표준 연구의 결과물은 개별 대상에 대한 사례연구의 형태를 띠 수밖에 없었다. 모든 학문은 총체적 체계화를 필요로 한다. 이론과 방법론의 체계화와 마찬가지로 연구 결과물의 체계화도 총론의 구성을 통해 가능할 수 있다. 표준 연구의 학문화는 이제 총론 작업만을 남겨두고 있는 것이다.

표준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은 '표준학'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 영문 표기는 standardology, standardics 혹은 standard science가 가능할 것이다. 그 계열학문적 위상은 위에서 말한 것처럼 사회과학이 적절하다. 그렇지만 기호학이 철학 내에 위치한 것처럼 사회과학의 한 분과학문 속에 위치할 수도 있다. 그러나 표준학의 특수성은 대단히 학제적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아직 부족한 점이 있다면 사회학적 접근과 정치학적 접근이다. 표준 이해당사들 간의 분쟁 조절이나 제정 과정에 대한 연구는 사회학이나 정치학적 접근을 통해 가능할 수 있다. 사회학과 정치학을 포함하는 학제적 성격을 충분히 갖춘 표준학의 성립도 총론 작업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

VI. 결론

전통적으로 표준은 호환성 확보와 기본 품질 보장 및 정보 제공의 기능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변화와 다양성의 시대를 거치면서 제품과 공정뿐 아니라 제도와 경영 및 문화와 윤리의 영역에도 확대되어 이제는 무역 규범, 사회통합 수단, 사회적 책임(SR) 이행 수단, 기업경영 전략, 기술혁신 도구, 지속가능발전의 도구로도 기능한다.

그에 따라 표준의 사회경제적 효과도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표준은 수확체증과 네트워크 외부성 및 확장성과 공공성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산출하는 한편, 고착화 현상과 양분화 현상 및 악단차 효과와 속물 효과 그리고 공장 옆 과수원 효과 같은 부정적 측면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부정적 효과들은 긍정적 효과들과 맞물려 발생하기 때문에 긍정적 효과들을 적절히 살리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 부정적 효과들은 무한 경쟁이 난무하는 '사실상 표준'에서 자주 나타나므로, '공적 표준'의 구속력 확대와 표준의 공공성 확대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표준의 부정적 효과를 방지하고 긍정적 효과를 촉진하는 것은 그 막대한 사회경제적 영향력을 볼 때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다. 또한 이와 같이 표준의 막대한 사회경제적 영향력과 그 영역 및 기능의 확장은 표준을 새로운 시대규범으로 확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독자적 학문의 성립도 가능하게 한다.

현대 사회는 다양성의 사회라고 한다.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사회는 이미 법과 협정으로 규율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화되어가고 있다. 기술의 개념이 지식과 감성의 영역으로 확대되고, 감성경영이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다양성이 확장되며, 성, 문화, 인종, 종교, 언어 등의 모든 현상들이 더 이상 단일성으로 귀결될 수 없는 다양성의 복합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논의한 결과로서 그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통일적인 새로운 규범이며, 표준이 그 새로운 규범으로서 각광받고 있다. 표준은 통일성을 한 성질로 하면서도 최소한의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질 높은 다양성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이 새로운 규범으로서 표준이 인간사회의 존재규범으로 작용한다고 할 때 독립적인 탐구대상으로 발전하고, 그에 따라 사회과학의 한 독립적인 학문의 가능성을 갖게 되며, 이미 그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조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독립 학문의 또 다른 조건들인 이론과 방법론 및 연구 결과물의 축적도 각론적 연구들의 발전을 통해 충분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회학과 정치학의 관심을 제고하고 각론적 이론과 방법론을 학제적으로 체계화하는 총론적 작업이 과제로 남아 있다. 표준의 발전 과정을 볼 때 이러한 작업도 머지않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표준학의 질적 발전을 위해서는 관련 연구역량의 확대와 노력이 병행될 것이 요망된다.

투고일 2009년 8월 3일

심사일 2009년 8월 17일

게재확정일 2009년 9월 21일

참고문헌

- 공업진흥청. 1994. 『세계 각국의 표준화와 인증제도』. 서울: 한국표준협회.
- 한갑수 감수. 2001. 『국어대사전』. 서울: 교육서림.
- 기술표준원. 2001. 『산업표준화 40년사』. 과천: 기술표준원.
- 기술표준원. "표준화란?" http://www.standard.go.kr/code02/user/0A/02/StdOutline_Intro.asp?OlapCode=STAU010201 (검색일: 2009. 09. 21).
- 기술표준원 "홈페이지." http://www.kats.go.kr/hm/business_01/standard_01_04_01.asp (검색일: 2009. 09. 21).
- 김병기. 2008. "국가표준체계의 정합성을 위한 법·제도적 제언." 『중앙법학』 10집 1호, 361-393.
- 김상규. 1996. "산업표준화의 역사적 고찰." 『경영사학』 13집, 37-56.
- 김상배. 2007. 『정보화 시대의 표준경쟁: 원텔리즘과 일본의 컴퓨터 산업』. 파주: 한울.
- 김원중. 1989. "표준화의 문제점과 대책." 한국품질경영학회 발표문집.
- 김창수. 2001. 『21세기 표준과 인증의 이해』. 서울: 대광서림.
- 박기식·강대경. 1998. "시장 변화에 따른 표준화 과정." 『국제통상연구』 3집 2호.

147-167.

- 신명재. 2007. 『신표준화개론』. 서울: 한국표준협회.
- 윤강술·강대경. 2000. "시장에 있어서 국제표준화의 채택과정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13권 2호, 27-42.
- 이기상. 1994. "표준화의 비용과 효과 분석." 『정보통신정책연구』 1권 1호, 33-67.
- 이덕희. 2008. 『네트워크 이코노미: 부분과 전체의 복잡성에 대하여』. 서울: 동아시아.
- 이준구. 2008. 『미시경제학』. 제5판. 서울: 법문사.
- 정병기. 2008. 『표준: 새로운 시대 규범 — 국가표준정책 교육교재』. 기술표준원 정책 보고서.
- 최종완. 1997. 『알기 쉬운 표준화 이야기』. 서울: 한국표준협회.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1999. 『기술 혁신을 위한 표준 제도의 현황과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 서울: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 한국표준협회. 2007. 『미래사회와 표준』. 개정 2판. 서울: 한국표준협회.
- 현대원·김광재. 2007. 『디지털 미디어 혁명과 표준전쟁』. 서울: 디지털미디어리서치.
- Arthur, W. Brian. 1996. "Increasing Returns and the New World of Business." *Harvard Business Review*. July-August, 1-10.
- Auriol, Emmanuelle and Michel Benaim. 2000. "Standardization in Decentralized Economie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90. No. 3, 550-570.
- Blind, Knut. 2004. *The Economics of Standards: Theory, Evidence, Policy*. Cheltenham, UK and Northampton, MA: Edward Elgar.
- Bolz, Norbert. 2002. "Manipulation und Konfusion." Hermann Glaser (Hrsg.). *Grundfragen des 21. Jahrhunderts*. München: Deutscher Taschenbuch Verlag.
- DIN. 2000a. *Economic Benefits of Standardization*. Berlin, Wien und Zürich: Beuth Verlag.
- _____. 2000b. *Gesamtwirtschaftlicher Nutzen der Normung: Zusammenfassung der Ergebnisse, wissenschaftlicher Endbericht mit praktischen Beispielen*. Berlin, Wien und Zürich: Beuth Verlag.
- _____. 2004. "German Standardization Strategy." Berlin: DIN.
- _____. "Homepage." <http://www.din.de/cmd?level=tpl-rubrik&menuid=47421&cmsareaid=47421&menurubricid=47429&cmsrubid=47429&languageid=de> (검색일: 2009. 9. 21).
- Farrell, Joseph and Garth Saloner. 1985. "Standardization, Compatibility, and Innovation." *The RAND Journal of Economics* 16. No. 1, 70-83.
- Gabel, H. Landis (ed.). 1987. *Product Standardization and Competitive Strategy*. Amsterdam: North-Holland.

- Gabel, H. Landis. 1991. *Competitive Strategies for Product Standards: The Strategic Use of Compatibility Standards for Competitive Advantage*. London: McGraw-Hill Book Company.
- Grindley, Peter. 1995. *Standards Strategy and Policy: Cases and Stori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Hallström, Kristina Tamm. 2004. *Organizing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ISO and the IASC in Quest of Authority*. Cheltenham, UK and Northampton, MA: Edward Elgar.
- Hawkins, Richard, Robin Mansell and Jim Skea. 1995. *Standards, Innovation and Competitiveness: The Politics and Economics of Standard in National and Technical Environments*. Aldershot, UK and Brookfield, Mass.: Edward Elgar.
- Hoyt, Homer. 1919. "Industrial Combination and the Standardization of Production."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27. No. 2, 95-104.
- Krislov, Samuel. 1997. *How Nations Choose Product Standards and Standards Change Nations*. Pittsburgh, Pa.: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 Mattli, Walter and Tim Büthe. 2003. "Setting International Standards: Technological Rationality or Primacy of Power?" *World Politics* 56. No. 1, 1-42.
- Matutes, Carmen and Pierre Regibeau. 1989. "Standardization Across Markets and Entry." *The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37. No. 4, 359-371.
- Ostrovsky, Michael and Michael Schwarz. 2005. "Adoption of Standards under Uncertainty." *The RAND Journal of Economics* 36. No. 4, 816-832.
- Porter, Michael E. 1980. *Competitive Strategy: Techniques for Analyzing Industries and Competitors*. New York: Free Press.
- Veall, Michael R. 1985. "On Product Standardization as Competition Policy." *The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18. No. 2, 416-425.
- WTO/TBT Agreement: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Annex 1, Terms and their Definitions of this Agreement, 2.

ABSTRACT ■ ■

Social Economic Effects and Possibility of Standards as a New Norm and Perspective of Standardology

Byungkee Jung | Yeungnam University

The more multiple society becomes and the more exchange in it does, the more social and economic effects of standards are expanding. Accordingly, it is required not only to minimize the negative effects of standards and to maximize their positive effects, but also the standards are emerging as a new norm at international level as well as at domestic one. For the standards are unity-oriented and, what is more, seek multiplicity with high quality by offering minimum criteria. In addition, the standards with the possibility of a new norm are expected to win scientific independence as they become the basic norm of human society. Existence of their own objects of study, development of their theory and methodology and accumulation of research results, i.e. the conditions of establishment of an independent study, are proved to be enough through the extensive archive of their particular researches. However, it remains as tasks to organize general study with complementary work by sociology and political science and interdisciplinary systematization of particular theories and methodologies.

Keywords: standard, multiplicity, unity, new norm, standardology